

타이완 CPC 크래커 트러블 “비상”

1-2주간 가동중단으로 추가상승 가능 ... 정기보수일정 따라 가격변동

타이완 국영 CPC(Chinese Petroleum)의 No.4 NCC(Naphtha Cracking Center)에서 트러블이 발생해 에틸렌(Ethylene) 가격이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에틸렌 무역상에 따르면, 중국의 춘절기간에 CPC의 No.4 크래커가 트러블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는데 보수기간이 최소 1-2주가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에틸렌 시장 관계자는 “크래커(에틸렌 생산능력 38만5000톤) 가동중단으로 월 30만-40만톤의 에틸렌 공급차질로 에틸렌 가격에 다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에틸렌 생산기업 및 무역상들은 2월 중순 이후 현대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이 정기보수에 들어가고, 일본의 석유화학기업들이 대부분 3-5월에 정기보수 일정이 잡혀 있어 에틸렌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가동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던 Asahi Kasei는 정기보수 일정을 4월에서 3월로 앞당겨 잡아 가동중단 사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sahi Kasei는 2003년12월 정기보수 조작사건으로 일본 산업경제성에 의해 가동중단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에틸렌은 최근 HDPE를 비롯한 PE 가격이 강세를 띄고 있어 동반상승한 이후 원유 및 나프타(Naphtha) 가격에 따라 1월에 톤당 160달러 이상 폭등했다.

타이완의 CPC는 나프타(Naphtha)를 Feed로 사용하는 크래커로 No.3, No.4, No.5 플랜트에서 에틸렌을 각각 23만톤, 38만5000톤, 40만톤 생산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크래커는 No.4(38만5000톤) 플랜트이다.

중국의 춘절과 한국의 설연휴로 거래가 없었던 에틸렌은 설연휴가 끝난 1월28일 실제 거래물량은 없으나 가격이 FOB Korea 톤당 75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4/01/29>